

수도교회 어린이부 가정예배문(3/8)

1.기도

부모님: 하나님. 오늘 우리 00이와 함께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세요.
온 세상을 보듬으시는 하나님, 우리 가정을 돌보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도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세요. 하나님,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파하는 사람들을 치료해주시고 보호해주세
요. 그리고 우리가 이 힘든 시간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용기도 주세요.

어린이: 하나님. 3월이 되었지만 학교도 못가고 친구들도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어요. 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물
러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학교도 가고, 친구들도 만나고, 교회에서 예배도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 부모님과 함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제게 우리 부모님을 주셔서 감사해요. 부모님을 통해 많은 사랑을 받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부모님 말씀을 안 들을 때도 있고, 부모님
마음에 상처를 줄 때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부모님 마음을 아프지 않
게 하는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부모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세
요.

다함께: 언제나 우리에게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
도합니다. 아멘.

2.부모님과 함께 나누는 성경 이야기





꿈꾸는 사람 요셉



야콥의 아들인 요셉은 열일곱 살이 되자 가축을 돌보는 형들의 일을 도왔어요. 야콥은 아들 열두 명 가운데 요셉을 가장 사랑해서 요셉에게만 예쁜 색깔 옷을 입혀 주었지요.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 야콥이 자신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요셉을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말도 건네지 않았답니다.

어느 날 요셉은 이상한 꿈을 꿔요. 요셉은 형들에게 꿈 이야기를 들려 주었어요.

“형들, 내가 꾸 꿈 이야기를 들어 봐. 우리가 모두 밭에서 곡식 단을 묶고 있었어. 그러다 갑자기 내가 묶은 단이 똑바로 일어섰는데, 형들이 묶은 단들이 둥글게 내 단을 둘러싸고 절을 하더라고.”

형들이 소리쳤어요.

“그래서! 네가 우리를 다스리기라도 한다는 말이야? 네가 우리들의 주인이 된다고?”

형들은 요셉의 이야기를 듣고 요셉을 더더욱 미워하게 됐어요.

요셉은 또 다른 꿈을 꿔고 이번에도 형들에게 꿈 이야기를 했지요.

“또 꿈을 꿔는데 태양과 달과 별 열한 개가 나에게 절을 했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질투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꿈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는 요셉을 꾸짖었어요.

“도대체 그게 무슨 소리야? 나와 네 어머니와 형들이 모두 너에게 절이라도 해야 된다는 거니?”

형들은 요셉을 더욱 질투하고 미워했지만 아버지는 요셉의 말을 모두 기억해 두었어요. 요셉의 형들이 모두 아버지 야곱의 양 떼를 몰고 세겜에 갔을 때였어요. 야곱은 요셉에게 말했어요.

“형들이 세겜에 양을 치러 갔단다. 네가 형들에게 가 봤으면 좋겠구나.”

요셉이 말했어요.

“네, 제가 다녀올게요.”

야곱이 말했어요.

“세겜에 가서 형들과 양 떼들이 잘 있는지 보고, 내게 돌아와 말해 주렴.”

야곱은 요셉을 세겜으로 가는 헤브론 골짜기로 보냈어요.

형들은 멀리서 요셉이 오는 걸 지켜보고 있었어요. 요셉이 형들에게 도착할 즈음 형들은 요셉을 죽일 계획을 짜고 있었거든요. 형들이 말했어요.

“저기 꿈꾸는 사람이 온다. 요셉을 죽여서 오래된 우물에 던져 버리자. 무서운 동물이 요셉을 잡아먹었다고 하면 될 거야. 요셉의 꿈이 무엇을 뜻하는지 한번 지켜보자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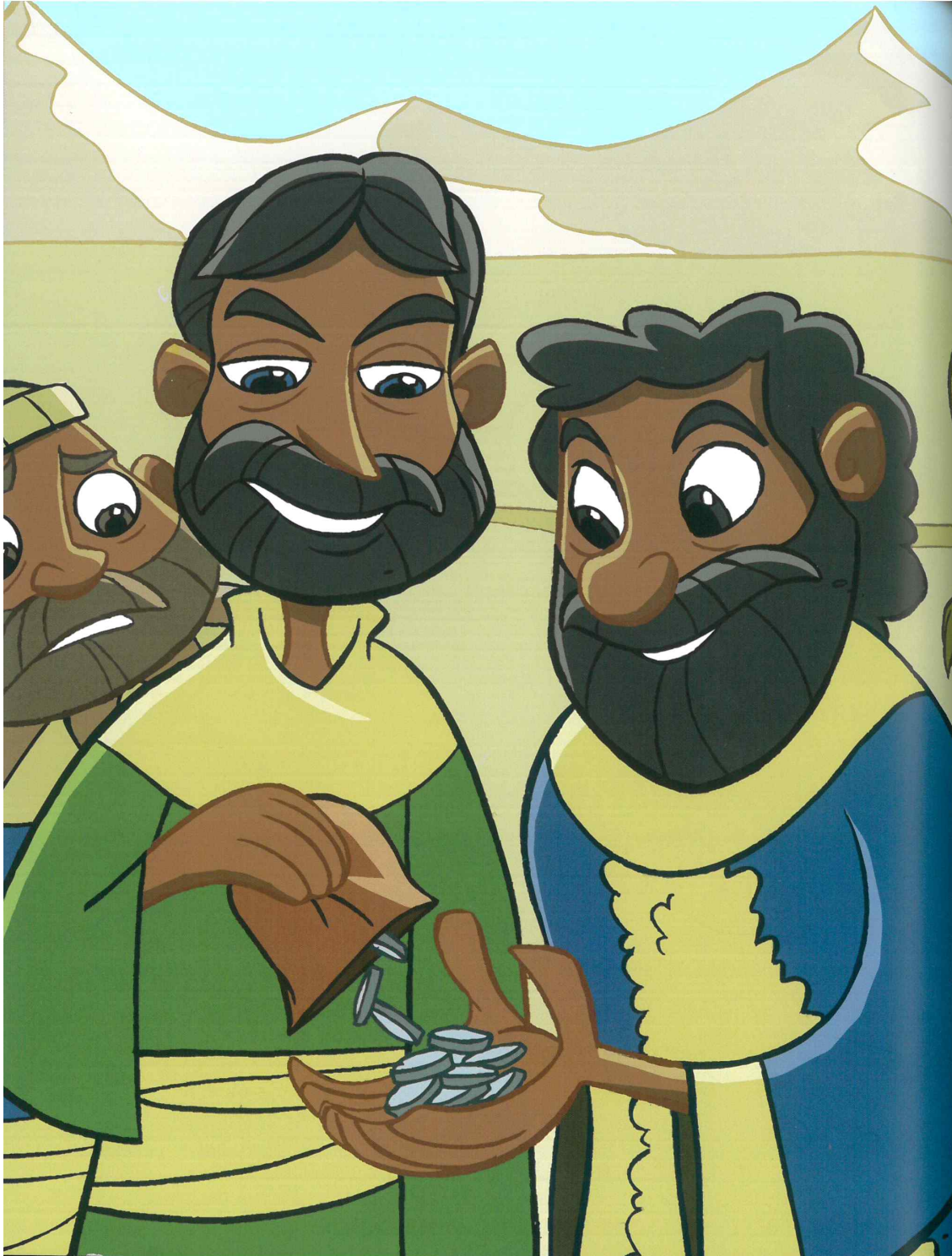
동생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은 큰형 르우벤은 요셉을 구하고 싶었어요.

“요셉을 죽이지 말자. 살인은 안 돼. 들판에 있는 구덩이에 던지기만 하고 몸은 헤치지 말자.”

르우벤은 나중에 구덩이에 빠진 요셉을 구해서 아버지에게 같이 돌아갈 생각이었어요.

요셉이 도착하자 형들은 요셉이 입고 있던 예쁜 옷을 빼앗아 찢고 요셉을 구덩이 안으로 던져 버렸어요. 구덩이 안에는 물 한 방울도 없었답니다.







그리고 나서 형들은 앉아서 저녁을 먹었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길르앗에서 오는 상인 무리가 보였어요. 상인이 이끄는 낙타에는 애굽에서 팔 향료와 향수 등이 실려 있었지요. 넷째 형 유다가 말했어요.

“그런데 요셉을 죽인 다음 어떻게 증거를 없앨 거야? 차라리 상인들에게 팔아넘기고 죽이지는 말자. 어쨌든 요셉은 우리와 피를 나눈 형제잖아.”

형제들은 요셉을 팔기로 뜻을 모았어요.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려 은화 20개를 받고 상인에게 팔아 버렸어요. 상인은 요셉을 애굽으로 데리고 갔지요.

이 사실을 몰랐던 르우벤은 뒤늦게 요셉을 구하러 구덩이로 돌아갔지만 요셉은 이미 사라진 뒤였어요. 르우벤은 슬픔에 잠겨 옷을 찢으며 괴로워했지요. 르우벤이 형제들에게 돌아가서 말했어요.

“얘들아, 요셉이 없어졌어! 이 일을 어찌지?”

르우벤이
구덩이로 돌아가
요셉을 구하려고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형 제들은 요셉의 옷을 가져가 염소를 죽이고 옷에 염소 피를 묻혔어요. 형제들은 피 묻은 옷을 아버지에게 가져와 말했어요.

“아버지, 들판에서 이 옷을 찾았어요. 요셉의 옷이 맞는지 살펴보세요!”

야곱은 요셉의 옷을 한눈에 알아봤어요.

“내 아들 요셉의 옷이 맞구나! 사나운 동물이 요셉을 잡아먹었어! 우리 요셉이 갈기갈기 찢겨져 버렸다니!”

야곱은 자신의 옷을 찢고 거친 베를 허리에 두른 뒤, 아주 오랫동안 아들의 죽음을 슬퍼했어요. 아들들이 아버지를 위로하려고 했지만 야곱은 이를 거절했습니다.

“나는 죽을 때까지 요셉의 죽음을 슬퍼할 것이다.”

저런, 아버지는 요셉을 위해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애굽에 도착한 상인은 요셉을 보디발에게 팔았어요. 보디발은 애굽 바로 왕의 신하인 *친위대장이었어요.



***친위대장** : 왕이나 황제처럼 나라에서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는 역할을 하는 군대를 '친위대'라고 하는데 이 군대를 이끄는 사람이 바로 친위대장이예요.

하나님의
천사가
되어 보세요!



🍎 기도해요

- + 우리가 남을 시기하거나 남의 것을 탐내지 않는 착한 마음을 가진 것을 감사드려 보세요.
- +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할 것은 또 무엇이 있을까요?

💖 실천해요

- + 감사할 것들을 종이에 적어 보세요.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나요?
감사할 것들을 글로 쓰거나 그림으로 그려 보세요.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이야기해 보세요.
- +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을 읽어 보세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3.주기도문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